

# 북한개발소식

2022 JUL

07

통권 201호

이달의 주제

북한 코로나 확산의 영향과 전망

서평

사랑으로 길을 내다

북한뉴스

북, 한미 항모훈련 이후 미사일 8발 발사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CONTENTS 2022 JUL



이달의 주제 :

## 북한 코로나 확산의 영향과 전망

- 권두칼럼 01** 북한 코로나 확산의 영향과 전망
- 칼럼\_1 08** 김신곤 \_ 북한의 코로나19전망과 창의적 협력방안 모색
- 칼럼\_2 14** 양운철 \_ 북한에서의 코로나 확산, 영향, 전망
- 칼럼\_3 19** 정은찬 \_ 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그 영향
- 칼럼\_4 25** 현장사역자 \_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기도
- 북한뉴스 31** 북, 한미 항모훈련 이후 미사일 8발 발사 외
- 서평 36** 사랑으로 길을 내다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코로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시다 외



권두칼럼

# 북한 코로나 확산의 영향과 전망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북한의 코로나 감염 공식 인정

5월 12일, 북한이 20년 초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이후 2년여 만에 최초로 코로나 감염자 발생을 인정했다. 발표 이후 북한 내에서 코로나는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어 한 달이 되지 않아 4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중이며 특히 사망자가 70여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북한 미디어는 보도하고 있다. 북한 측의 공식 발표만을 보면 북한이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서방세계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만 제한되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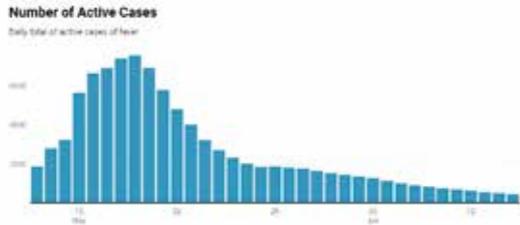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먼저는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걱정스럽다. 북한의 국경 봉쇄 연장으로 인한 외부와의 교류 단절 장기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북한 사람들과의 만남 및 선교와 구제 활동도 상당기간 지연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단순히 당국의 공식 보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 사태가 북한에 미칠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가벼이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정보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알려진 상황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북한 코로나 확산 실태

북한 당국이 국내 코로나 확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5월 12일 이후 북한 내 코로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월 중순을 기준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증자는 누



〈북한의 발표에 따른 5월 12일-6월 15일까지 일자별 신규 발열자(38 North "North Korean COVID-19/Fever Data Tracker")〉

적 450만명에 육박한다. 북한 당국은 그 중 대부분이 완쾌되고 4만 6천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누적 사망자는 73명(6월 15일 기준)이다.

북한 매체는 연일 보도를 통해 당국의 방역 활동을 알리고 있다. 방역수칙과 함께 의약품 사용법이나 다양한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대응 관련 현지지도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약국 운영의 부실을 지적하는 모습, 또 의약품 부족과 관련하여 관리들을 질책하고 군을 투입하라고 명령하는 모습 등을 방송하며 지도부의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일자별로 신규 유열자와 완치자, 사망자 등을 발표하고 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5월 19일 75만 4천여 명의 신규 유열자 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신규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당국이 최초로 감염자 발생을 인정한 지 7일 만에 신규 감염자수가 고점에 도달한 것이다. 신규 환자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6월 20일 기준으로는 1만 8820명 수준이다.

여러 의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실제 감염자 수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

정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감염자를 유열자, 즉 발열환자 기준으로 관리/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변종의 경우 국내 기준 발열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30% 수준이었다는 것이다.<sup>1</sup> 북한도 비슷한 비율이라고 볼 때 발열이 없는 환자를 포함한다면 약 1천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즉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상황일 것이다.

### 북한 코로나 대응의 그림자

북한 측의 발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비록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북한 당국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나 수치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북한의 발표 이면에 가려진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먼저 북한이 발표한 사망자 수치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낮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낮은 편이었던 한국의 경우 코로나 누적 사망률 0.13%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발표된 사망자와 유열자의 수를 가지고 사망률을 계산해보면 약 0.002% 라는 값이 도출된다. 한국의 통계와 비교해보아도 60배나 낮은 기록적인 수치이

1 “북한 코로나19 실제 확진자 1000만명 달해...치명률도 더 높을듯”, 동아사이언스 (22.05.26),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4583>> (조회일: 22.06.16)

다. 예상되는 무증상 확진자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기초적인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의약품 부족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 수준도 낮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사망자 수가 기록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사망자 수와 발표된 값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간 철저하게 코로나 환자 “0”명을 외쳤던 북한 당국이 갑자기 코로나 발생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 감염자 발표는 대부분 유열자, 즉 발열 환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의심 발열 환자가 북한에서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부터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있었다는 여러 발표와 보도가 있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의심증상자를 파악하고 격리해왔다. 20년 11월 WHO는 북한당국의 보고를 인용하여 11월 초 기준으로 6,173명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자 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발표된 확진자는 ‘0’명이었다.<sup>2</sup> 강영실 북한과 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 내부자료를 입수하여 사리원과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회령,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일대에서 지난 20년 5월 코로나19

2 WHO “북한 코로나 의심 증상자 6천명 이상...공식 확진자 없어”, VOA (20.11.18) <[https://www.voakorea.com/a/korea-korea-social-issues\\_covid-dprk-vaccine/6047973.html](https://www.voakorea.com/a/korea-korea-social-issues_covid-dprk-vaccine/6047973.html)>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sup>3</sup>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갑자기 코로나 발생을 인정하고 나선 이유로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거세어 공개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인정하고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겠지만 이번 코로나 발생 인정 발표가 이미지 쇄신이나 정치적 퍼포먼스 차원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의사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북한통일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 내에 전부터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고,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은 지나갔을 것이며, 이번 발표는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았다. 2년 넘게 봉쇄가 지속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은 만큼 이제 인정하고 발표해도 된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을 것이며, 애초에 상황이 다 계획돼 있었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sup>4</sup>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모습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체제 안정 및 지도자 선전 등에 더 큰 중점이 있는 듯하다. 세계 각국이 보여준 바와 같이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전면적인 봉쇄(Lockdown)와 격리조치이다. 북한 역시 코로

3 강영실, “코로나 19에 대한 북한의 기술적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9월호, pp. 35-53.

4 북한 코로나 '심각한 상황 이미 지났다'?...뒤늦은 '대유행'에 엇갈린 분석, BBC 코리아 (22.05.17) <<https://www.bbc.com/korean/news-61454930>> (조회일: 22.06.17)



〈북한 신의주시 신포시장 인근 전경. 2019년 11월(맨 위) 상인과 장을 보러온 주민들로 붐비던 시장 주변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중 국경 봉쇄 이후인 2021년 3월에는 눈에 띄게 한산해 보인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면 봉쇄 조치가 내려진 2022년 5월 30일(아래)에 촬영한 사진에는 시장 주변에 차량과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RFA 자유아시아방송)〉

나 시기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내적으로도 이동 통제를 크게 강화했다. 보통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늦추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병상 및 음압병동 등 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며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을 버는 용도로 활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는 전염병 확산은 막거나 늦출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직접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배부하기도 한다.

북한 사람들의 민생에서 장마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 이후 봉쇄와 이동 통제 정책의 장기화는 북한 주민의 가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코로나를 당국의 내부 지배력 강화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활발하게 보여주었지만 민생경제나 의료적 대응을 위한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북한 당국은 한류를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문화를 단속하며 시장 활동의 활성화 속에서 통제가 약해진 부분들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장마당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설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의료적 차원에서의 대비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의료 물품 및 백신 공급프로젝트 코백스(COVAX)의 백신 무상 지원 등도 거부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발생 인정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인정 이후 연일 방역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으로부터 의료 물품을 공수하고 러시아와도 협력을 도모하는 등 몇몇 우방으로부터만 일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 체제의 유지와 안정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의 선택이겠지만 의료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지원을 마다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은 자신들이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애민적인 모습은 아님이 분명하다.

압도적으로 낮은 사망률과 그간 의료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모습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코로나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보다는 체제 안정 차원에서 임의로 수정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 내에 사망자 등 인명피해 규모도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로서는 발표된 것 이상의 피해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전망과 대응

안타까운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원 모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의 특성상 가장 시급한 도움은 무엇보다 의료 부분일 것이다. 즉 국가적인, 또는 국제기구나 NGO들을 통한 공식적인 의료 지원이다. 사실 북한 내에서는 오랜 기간 여러 NGO들이 의료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는 북한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코로나 관련해서는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의료적 지원의 필요가 높아진다면 이전에 북한에서 활동 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의료적

지원은 대북 제재에도 대부분 예외적용 대상이어서 절차적 문제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만 앞서 예상한 것처럼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욱 심각하고 북한 당국의 우선순위가 체제 안정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북한 측이 공식적인 의료 지원/협력을 받아드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그간의 의료 협력 간에도 지원 기관의 모니터링에 대해 불편한 태도를 취해왔던 북한이 코로나 현황을 노출하면서까지 지원을 받거나 외부의 발길이 닿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끝까지 외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봉쇄 위주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당분간 공식적 인도적 지원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비공식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비공식적인 지원 활동은 아무래도 국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 뿐 아니라 북한과 대부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종식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자체가 국경 봉쇄를 매우 삼엄하게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국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삼성에 지역적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물리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 전 지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대부분의 인구가 코로나에 노출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북한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료일 것이다. 감염병의 특

성상 확산속도가 빠르면 정점에도 빠르게 도달하고 전체 유행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면 감염자 수가 수 일만에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월 말부터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상에서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봉쇄와 격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 동안 코로나 감염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을 명목으로 국경을 걸어 잠가왔다. 그렇지만 국경 통제가 길어지다 보니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국가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전면적인 무역 재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올해 초만 해도 북한은 국경을 제한적으로나마 열고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도 했다. 일부 인적 왕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지역별로 봉쇄를 실시함에 따라 북한도 국경을 다시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였지 결국 한 번은 겪어야 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은 더욱 철저히 국경을 닫고 지역 봉쇄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북한이 코로나를 두려워 할 이유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나 국경통제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재개되는 시

점은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식적인 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북한 측이 직접적인 의료 인력 방문 등을 꺼려한다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그 외 필수 의약품 지원 등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도 의료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혹자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표하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코로나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의약품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의약품은 인명 구제라는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전용 우려도 적은편인 만큼 충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지원도 준비해야 한다. 의약품 부족 외에도 오랜 봉쇄로 인해 가중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 확산이 5월, 즉 모내기철과 겹치는 바람에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의 차질도 예상된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의 경우 살길을 찾아 월경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그 동안 급감했던 탈북자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선교를 준비하자

북한의 코로나 종식이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그 이후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지금 이루어져

야 한다. 이번 북한의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북한의 코로나 종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진행되었던 국경봉쇄 등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극적일 것이다. 북한이 국경을 열기 시작한다면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겠지만 점차 그간 억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상황 종식에도 통제를 기대만큼 완화할 가능성은 사실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은 코로나 시기 동안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반동 사상문화법 제정 등 종교를 포함한 비사회주의 문화 활동 단속 등 그간의 장마당 중심 경제 활동 속에 과거에 비해 약해진 이념과 국가 통제를 다시금 강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북한이 비록 경제 문제로 인해 시장 활동을 허용하고 때로는 활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거의 공산주의적 체제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더 이상 명분으로 활용할 수 없더라도 강화된 통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2년 넘게 국내외적으로 이동 통제와 이로 인한 물류 통제 및 장마당의 침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당국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즉 억눌려있는 주민들의 수요와 경제문제, 그리고 강화된 통제를 원하는 당국의 입장 사이 그 어딘가에서 북한의 코로나 이후 정책은 결정될 텐데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대외 교류와 장마당의 활성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탈북자 수의 증가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의 코로나 펜데믹으로 선교현장의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일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선교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현장 사역이 중단되었다. 탈북자들의 숫자도 급감했고, 한국으로까지 입국한 탈북자 숫자는 크게 감소하여 올 1분기 겨우 11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현 시점에서 북한 선교 사역의 역량은 분명 약해져있다. 올해 초부터 북한개발소식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교 현장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바로 지금이 선교사와 사역자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이다.

코로나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난관으로 수년간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펜데믹은 점차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북한도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점 선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열쳐녀 비유에서와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뿐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선교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충분히 기쁨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길 바라며 북한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북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

# 북한의 코로나19전망과 창의적 협력방안 모색

## -생명의 무게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

김신곤 (고려대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주임교수, 통일보건의학회 이사장)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교훈 중의 하나는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점이다. ‘잇대어 있다’는 표현은 ‘서로 이어져 있고, 기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 ‘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일상이 된 마스크 쓰기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시야를 넓혀 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자.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나라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발생한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2차 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미 세상은 ‘one world, one health’의 초연결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팬데믹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나라의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그런데 백신도 없고 의료 인프라도 미비한 나라에선 고전적인 방역, 봉쇄와 단절이 유일한 대응책일 수 있다.

금년 4월까지만 해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코로나19 환자는 0명이었다. 검사 자체가 제한적일 상황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국경의 전면봉쇄와 강력한 이동제한 등 고전적인 방역으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선전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하였고, 6월 16일 현재 458만명(북한 인구의 18%)가 발열자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로나19 제로 국가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병규모가 증가한 나라로 급변된 것이다.

### 1. 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당국의 대응

북한은 코로나19가 첫 확인된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1월

28일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육상과 해상, 항공 통로를 모든 차단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봉쇄 정책에 돌입하였고, 지역 이동시에는 ‘위생방역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법률도 강화하여 2020년 4월에는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으며 8월에는 ‘비상방역법’을 제정하여 규정 위반시 최대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 한 명의 감염자라도 발생할 경우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다”(로동신문, 2020.2.20)고 강조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왔다.

WHO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 당시까지, 64,207명에게 총 182,968건의 PCR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검사 총 건수가 우리나라의 하루 검사 수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검사 역량이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있었다 해도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봉쇄 초기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함경북도나 양강도 일부에서 강제 격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다가 금년 5월 12일, 북한 당국은 평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BA2(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하였고, 국가방역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4월 말부터 전

날까지 총 발열자는 52만 4천 440여 명이고, 이 중 28만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21명”이라면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는 건국 이래 대동란”(로동신문, 2022.05.14)이라고 하였다.

이전의 SARS, 신종플루, 메르스 때를 거치면서 단 한번도 악성바이러스 환자의 확진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왜 환자 발생을 인정했을까? 코로나19가 지방이 아닌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폭발적 발생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강력한 봉쇄와 방역 조치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5월 12일 새벽 다급하게 소집된 정치국회의나 ‘건국이래 대동란’이라는 표현 등은 북한 당국 역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졌음을 추정하게 한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4월 말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돌 경축 열병식’과 이 때를 즈음한 북한 내의 대대적인 인적, 물적 교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5월 18일 보도를 보면 유증상자의 38%, 확진자의 25%가 평양에서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봉쇄와 격폐(사업단위·생산단위·생활단위별 봉쇄)로 대응하였다. 전국의 모든 도·시·군이 강력하게 차단되었고, 봉쇄된 주민들에게는 군대에 비축된 약품과 군량미까지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품의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



〈코로나19 '최대비상방역체계' 이행 강조하는 북한 선전물 (노동신문)〉

성에서 배포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치료를 위한 민간료법>이다. 여기에선 열, 기침, 가래, 목안아픔에 대한 다양한 민간요법이 소개되고 있다.

## 2. 북한의 코로나19 전망

북한은 악성비루스 확진 환자라는 말 대신에 발열 환자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WHO의 공식 통계에서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보고한 환자 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매일 전세계의 코로나19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Worldometer (worldometers.info)에서는 북한의 발열자를 코로나19 환자로 집계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발

열자 중 상당수가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라고 판단한다. 홍역 등 매우 전염력이 강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행규모가 증가하는 감염병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불과 1-2달 내에 우세종이 될 정도의 빠른 전염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우리의 통계에 비추어보면 무증상이 25%이고 유증상자 중에서도 발열 환자는 30% 정도였다. 따라서 실제적인 유행 규모는 북한 발표의 4배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연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 개연성이 있다. 실

제로 평양에서는 봉쇄가 해제되고 대규모 회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백신 접종 없이 집단 면역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 원고를 독자들이 읽을 즈음에는 북한 당국이 이미 “악성비루스 대동란을 극복하며 세상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이 폐쇄되며 북한의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중 수입이 2020년 통계에서 80% 급감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 발생한 가뭄 및 태풍으로 인한 식량난도 심각해, 미국 C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3개월의 식량 양에 해당하는 86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인도적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철수하여 식량이나 의약품의 지원도 매우 제한되는 삼중고의 상황이다. 영양부족인구가 전주민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Global Hunger Index 2021), 결핵유병인구는 13만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결핵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중 감염으로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방역장비, 의약품 및 치료장비 역시 매우 미흡하며 무엇보다도 백신접종률이 공식적으로 0%인 나라이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240만명(전인구의 1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 백신 미접종자의 0.6%가 사망에

이르는 것과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10만명의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이며, 강력한 봉쇄의 부작용에 따른 식료품 공급 부족으로 적지 않은 비코로나 사망이 더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되었다. 한국누가회 회원이기도 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안동일 교수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만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 사태는 최소 수년간 지속될 것이기에 매년 이 정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 비율은 0.002%에 불과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적을까? 악성비루스의 엄청난 증가세에 더해 사망자수가 급증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킬 법하다. 해서 북한 언론에서도 ‘비과학적 공포, 신념 부족, 의지 박약을 제거하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때문에 심리 방역의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사망자 수를 대폭 축소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론 코로나 19 PCR 검사 자체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서 실제 확진된 사망자 숫자만으로 추산했을 개연성도 있다. 북한의 사망원인의 1, 2, 3위는 각각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폐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당국은 발열 사망자의 2, 3, 4위 원인을 각각 호흡기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 할지라도 평소

의 사망 원인으로 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 3. 어떻게 북한을 도울 것인가?

북한의 코로나19 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은 인도적 이유만이 아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발 오미كرون 변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종 변이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갑자기 환자의 유병 규모가 증가할 때 발생했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이의 진원지가 되는 비판적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발 코로나19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를 북한이 다행히 넘어선다 할지라도, 세계적 차원에서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 19는 끝난 게 아니다. 거기에서 이번 봉쇄로 인해 식량난은 가속화되고 의약품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되는 이유이다. 북한은 소위 두 개의 나라, 평양과 평양 밖 공화국이 존재하며 이들 사이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하다. 이 위기 국면에서 지방의 취약계층이 직면할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북한 주민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신적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고통의 역사 한복판에서 친히 고난을 체휼함으로 응답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북한 주민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 자신이 당하는 아픔처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시선으로는 우리

와 북한 주민의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 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이 당하는 아픔을 극복하는데 좋은 동행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쉽지 않은 해법 중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있거나 할까? 이성의 눈으로는 비관하지만 신앙으로 낙관하면서 평소에 주장하는 바를 옮겨본다.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고전적인 방식은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한 북한도 이제 원하지 않는다. 당장은 북한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식량이나 약품을 보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이 방역장비, 의료장비, 백신 등을 생산하는 개발협력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바이오-메디컬 콤플렉스로 전환하면서 인류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한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외부지원을 받는다는 부담도 적어지고, 보건의료 영역에 국한한 유엔제재 유예도 가능하다. 이를 매개로 북한이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현재의 강대강 대립구조를 완화하며 비핵화 로드맵 협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코로나19 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물자와 백신, 치



〈2018년 7월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악수하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오른쪽)과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왼쪽). 남북은 회담에서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 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본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료를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아직도 反생명의 상징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는 역설적 메시지가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그 어떤 제재보다도 강력한 자발적 국경봉쇄로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내며 한편으로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다.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유이다. 언젠가 대북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의 비핵화 실천 수준에 상응하여 유엔제재의 완화, 경제협력, 평화협정 등 단계별 로드맵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복잡 방정식이 풀리려면 상호간의 신뢰가 필수적인데, 팬데믹 위기에서의 보건의료 협력이 그런 신뢰 형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는 이미 적대적 이방인

이 되어버린 남북이 서로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북한에서의 코로나 확산, 영향,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 1.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첫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전 세계는 큰 혼란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인한 전염병은 곧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e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2020년 3월 11일에는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이후 COVID-19는 전 세계에 심각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타격을 가하였으며,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COVID-19의 발병이 알려진 후 북한은 2020년 1월 29일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화했고, 내각 차원의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앙비상방역지휘

부와 국가비상방역위원회도 구성되었다.<sup>1</sup> COVID-19에 대한 북한의 초기 대응은 국경 폐쇄, 장마당 금지, 국내 이동 제한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2022년 3월까지도 자국에는 코로나 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언론(Daily NK)에서는 2020년 3월에도 상당히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약 180여명의 군인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2020년 7월 개성시가 3주간 봉쇄되었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이외에도 38North, Asia Times 등에서도 북한 내의 주민 사망설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2년 5월 처음으로 평양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스텔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과 첫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5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sup>1</sup> 황나미,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세종정책브리프 No. 2022-10 (세종연구소, 2022.6.2.), p. 4 참조.

제8차 정치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건국 이래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다시 독려했다. 그러나 5월 13일 6명의 사망자와 35만 명의 발열자 수가 보도되었고, 14일에는 추가로 17만 4천여 명의 발열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발열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미국의 북한 보도매체인 NK News는 발열 사례가 약 200만 건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추정치는 6월 14일 현재 전일 대비 9%가 감소한 2만9910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 전국 누적 확진자는 4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한다.<sup>2</sup>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의 COVID-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는 북한의 공식 발표 수 보다는 많지만 사망자수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적은 수이며, 오히려 오미크론으로 인한 발열자는 상당수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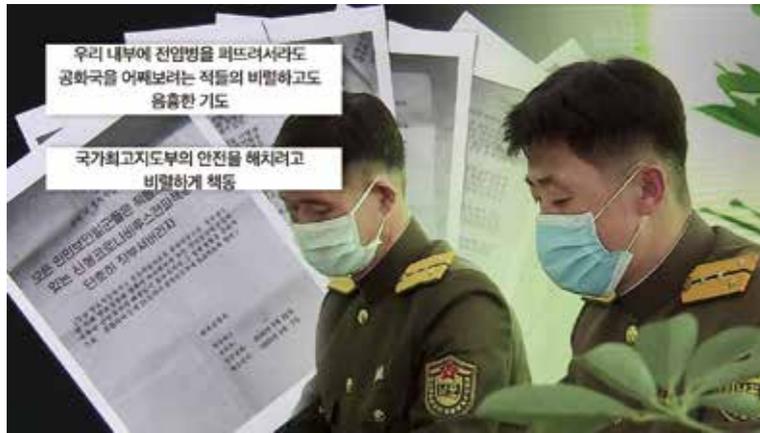
## 2. 북한의 지도부의 사고 이해

COVID-19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을 강제했다. 동시에 주민들의 모임을 축소했다. 대표적으로 시장의 폐쇄와 운영 제한을 들 수 있다. 김

<sup>2</sup> 38 North, “North Korean COVID-19/Fever Data Tracker,” June 15, 2022.

정은으로서 봉쇄와 이동 제한을 통해 국가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간주한 듯하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철저히 국가에 의존하게 된 후 점차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고 국경봉쇄 해제 수순을 구상한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책임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었다. 시장의 확산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개별 단위가 국가이익과 관련 없이 국가의 지도와 통제 밖에서 당면 이익만 추구한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 북한 지도부는 국가의 지휘와 통제가 무력해서 부작용과 경제난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자본주의 수용성은 높다고 판단되지만 동시에 시장 확산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수시로 시장을 감시 및 재산을 몰수한 사례가 반증이다. 동시에 국가에서 금지하는 한국 관련 정보, 북한내부 정보 판매, 탈북 기획 관련 정보 등이 개인 단위의 상행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동영상 시청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좋은 사례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가용 가능한 자본규모가 국가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시장통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은의 시장화는 계획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 우선 정책은 필요할 때만 큰 폭으로 허용하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KBS가 입수, 보도한 2020년 2월자 선전선동부의 강연 및 정치사업 자료. 적들이 북한 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폐시키려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지역에서 새들이 죽고, 국경지역에서 정체를 자들이 액체를 강에 쏟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KBS)〉

다. 따라서 '코로나19 제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역으로 증명되어 국가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가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Daily NK나 자유 아시아방송(RFA) 등의 보도에는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

가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진실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정책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심지어 '적들이 바이러스를 북한 내부에 유폐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 3. 북한의 COVID-19 백신 수용 거부

현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료 지원에 대한 기대가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을 것이다. 실제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감염은 일반 주민보다는 대외 활동이 많은 부서와 집단 동원에 참가한 주민들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는 국지적 유행병

(epidemic) → 심각한 전염병(pandemic) → 독감 같은 풍토병(endemic) 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코로나19는 백신의 등장과 철저한 예방 후 위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북한 정책과 주민들의 저항력 정도에 따라 코로나19의 종료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제공을 거부했다. 2021년 국제 백신공동구입 프로젝트인 COVAX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만회 분 배정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거부했으며 같은 이유로 중국의 시노백(SINOVAC) 백신 300만회분의 수용도 거부했다. 2022년 4월에도 COVAX가 배정한 약 183만회분의 백신을 수용을 거절했다. 이런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이면에는 시노백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시노백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51% 정도 된다고 보고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각각 95%와 94% 정도로 나타났다. 북한이 시노백과 이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용을 거부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율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COVID-19 확산 방지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COVID-19의 확산은 북한에 큰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2022년 3월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북한 코로나19의 확산에 관한 보고서 *North Korea's COVID-19 Lockdown: Current Status and Road Ahead* 에서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 면역이 없고 백신도 접종하지 않아,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의 정재훈 가천대 의대교수도 북한의 낮은 백신 접종률, 허약한 건강상태로 면역수준이 낮아 대규모 유행은 필연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COVID-19로 입은 피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북한매체의 보도에만 의존하는 현실에서 피해가 축소되어 발표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많은 결핵 환자의 높은 사망률이 COVID-19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COVID-19 전파의 후유증은 본건, 의료 문제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량 위기가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후 북한의 강력한 이동제한 정책은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시장 활동, 식량 생산, 무역 활동 등이 크게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 농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도시의 학생, 근로자들이 농번기 모내기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런

# 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그 영향

##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의식

정은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평양시내에 걸린 방역 포스터 (REUTERS)〉

국가 수입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시장의 붕괴로 일반 주민들의 경제 수입은 급감했지만, 오히려 국가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공표했다.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경제현안 보고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는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

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국가가 철저히 수출입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무역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장이익을 국가가 획득하려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는 자력갱생은 국가 주도의 착취적 실천방식에 불과하다. 원자재와 에너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자력갱생이나 구간화가 불가능한 것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공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무기나 미사일은 북한 주민들의 직면한 코로나19 위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

대규모 이동이 가능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아직 경제 삼중고(triple distress)를 극복하지 못한 북한경제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보건위기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농촌진흥원은 2021년 북한의 식량생산은 전년대비 약 29만 톤 증가한 469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다. 2021년 곡물생산량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간 평균 곡물 수요량 550만 톤과 비교하면 80만 톤 정도가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 농무부의 국제식량안보평가 2021-2031(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20-30) 보고서는 2021년 북한 주민의 63%가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고, 관련하여 북한은 2021년 여름 주민들에게 전시 비축미를 긴급 방출한 사례가 있다. 유사한 현상이 2022년에 재현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국가 기업소의 경우도 에너지,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북한은 시장의 확산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보다는

### 1. 코로나19와 북한

코로나19는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며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주민 대상 사회통제를 강화해왔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체제의 대응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신속한 가동에서 시작되어 같은 해 1월 22일 외국인 관광객 북한 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와 1월 31일 북·중, 북·러간 모든 항공 및 열차 노선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로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북한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경무역 전면 금지조치가 2020년 1월 30일 시행되어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에서 약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 교역이 중단되고, 북한경제 발전은 물론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북한주민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당 대회 등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가동 및 법규 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주민들 속에서는 자력갱생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독려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안 북한은 자국 내에서는 그 어떤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평하며 코로나 청정국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돌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음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대상 사회통제를 사상적, 조직적, 법적 면에서 한 단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조치들은 그 이전시기보다 더욱 강

행되는 추세여서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북한주민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확산하는 북한주민 자발적 의식변화도 제어하고 있다.

## II. 코로나 시기 사회통제 강화의 영향

### 1. 사상적 통제 강화의 영향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 대상 사상적 통제를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상교육 강화, 지도자의 위대성 강조, 코로나19 방역 관련 체제선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사상교육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북한주민 누구나 초기 교육 단계에서부터 평생 받게 되는 모든 일반 교육 위에 우선인 교육이다. 북한의 사상교육은 체제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강화되어 체제결속 및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국가배급제도의 붕괴에 따른 주민 혼란이 가중되었을 때에도, 2009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주민 불만이 확대되던 시기에도 북한은 주민들을 지도자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는 카드를 들었다.

2020년 1월 본격화한 코로나19 방역시기에도 북한의 정책적 결단은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신속한 가동과 함께 주민 동요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한 사상적 통제, 즉 사상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체제의 주민 대상 사상교육은 초기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 받게 되는 평생교육의 특징을 띠며, 지도자와 체제에 맞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과 직결된다.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은 김일성 시기에는 ‘공산주의 새 인간’, 김정일 시기 ‘주체형의 새 인간’, 김정은 시기 들어 ‘주체형의 새 인간’에서 ‘사회주의 건설역꾼’으로 승화되었다.

코로나 시기 김정은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사상적 통제는 바로 참다운 애국자, 사회주의 건설역꾼으로 주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한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교양(위대성교양·김정일 애국주의교양·반체제급 교양·신념교양·도덕교양)을 사상교육의 중점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더욱 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한 주민의 자발적 의식변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상적 통제의 강화는 사상교육을 통한 지도자 신격화, 체제동조이념 등을 강력히 주입되는 결과로 이어져 북한주민의 자발적 의식변화를 제어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사상적 통제가 조직적 통제를 동반하므로 코로나 확산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민 자립생존 환경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의식변화를 촉진하는 외부 문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영향으로 연동된다는 점이다.



〈202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탈북민들을 비판하는 청년 학생 집회 모습 (VOA)〉

### 2. 조직적 통제 강화의 영향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는 북한 주민의 행동방식을 규제하는 조직적 통제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조직적 통제는 기층조직을 통한 반사회주의의 현상 척결, 조직생활 강화 및 내부 점검을 통한 조직생활 불참자 징계, 고난의 행군 및 코로나19 극복 차원의 시장 운영 제한 조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기층조직을 통한 반사회주의의 현상 척결은 북한이 코로나19 시기 본격화하고 있는 조직적 통제이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2021년 4월 6일 당세포비서 제6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의 현상 근절을 사회통제의 전면에 부각시켰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북한은 반

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북한 사회주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준칙을 규정하였다. 특히 당세포비서 대회에서는 노동당의 하부말단 기층조직인 당세포가 전면에서 반사회주의의 현상을 철저히 근절할 것과 당의 외곽단체인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등의 기층조직들도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2021년 ‘청년교양법’이 채택된 이후 북한체제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 및 조직생활 통제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여서 북한 신세대의 자발적인 의식변화는 그 속도가 제어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통

한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상교육을 통해 내면화된 사고방식이 실생활에서 행동방식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다. 즉, 조직생활 통제는 의무적인 정치조직가입 및 조직생활 참여를 요구하며, 이 과정에 사상교육을 통해 주입된 충성의식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검증되게 되고, 이에 위반되는 대상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의 정치조직가입은 만 7세(소학교 2학년)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 주민은 만 7~13세까지는 조선소년단, 만 14세부터 30세까지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만 30세 이상의 사무원(공무원 포함)과 노동자는 조선직업총동맹, 만 30세 이상의 농업근로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전업주부여성들은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당에 입당하였을 경우 노동당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한다. 조직생활의 의미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상학습, 조직생활총화에 참여하는 것, 실생활에서 충실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특히 소속된 조직에서 생활총화를 통해 한 주 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조직구성원 중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해야 하는 과정은 매주 반복된다.

북한체제가 규정한 이러한 조직적 통제는 조직생활평정서에 의해 정치적 평가, 화선입당 및 표창장 수여를 통한 우수자 평가, 조직생활 불참자에 대한 조직적 징계 및 법적 징계를 통해 완성된다. 북한주민의 정치조직생활은 북한체제하에서 지도자 중심의 일심단결 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통제의 강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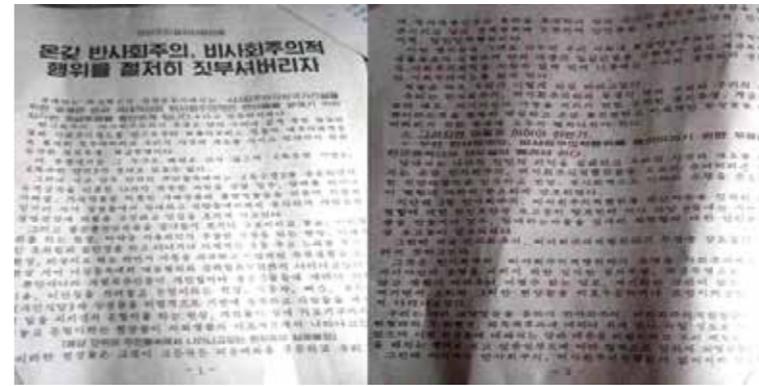
도구이다.

북한체제의 주민 대상 조직적 통제는 코로나 확산시기 방역 차원의 통행금지령, 사경제활동 제한, 시장운영의 한시적 중단 등으로 이어져 자립생존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주민에게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공표한 이후에는 이전시기보다 조직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시행하여 북한주민 잠재의식 속의 통제에 대한 두려움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결과 북한주민 의식변화는 코로나19 이전시기 보다 그 속도가 더디거나 정체되는 상황에 있다.

### 3. 법적인 통제 강화의 영향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시기 사상적, 조직적 통제와 함께 법규범에 의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북한의 법규범에 따른 징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정치적 범죄와 일반 범죄로 구분된다. 정치적 범죄는 특별독재대상구역 감금으로 그 징계가 이어지는 중범죄이며, 일반범죄는 정치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포함하고 있어 구금시설, 강제노동단련대, 교도소 등을 통한 징계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 북한 내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는 생계유지와 연관된 일반범죄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범죄로서 경제질서를 위반한 생계형 범죄, 금전적 이득취득을 위한 고리대금업죄, 절도죄, 밀수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 또한 공공질서위반죄로서 도박, 약물



〈북한당국이 국경연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연자료의 일부 (RFA 자유아시아방송)〉

중독, 교통질서위반, 술주정, 풍기물란행위, 수정주의 날라리풍 유포 등도 상당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력남용죄로 권한을 악용하여 뇌물수수, 부정부패, 물자 및 의약품 착복하여 징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북한체제가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채택)에 의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행위 차단 및 사상체제수호 사상 준수 법규범이 강화되어 중징계가 가하고 있다.

데일리NK가 입수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제27조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남조선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남조선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제28조 미국, 일

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10년까

지의 로동교화형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범에 의한 징계 강화는 북한주민의 바람직한 의식변화를 제어하는 강력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 강행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내에서 확산되는 사상이반, 사회일탈을 규제하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바람직한 의식변화를 차단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 Ⅲ. 코로나 시기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한계

코로나19 시기 김정은 정권은 방역 일환에서 추진한 국경봉쇄, 지역간 통행금지령, 시장의 제한적 운영 등의 조치가 내수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주민 불신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상적 통제와 조직적 통제, 법적 징계를 포함한 주민 대상 사회통제를 그 이전시기보다 더욱 강행하고 있다. 특히 시장을 통한 외부사조 유입 및 유통, 외부

#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기도

현장사역자

2020년 2월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전해왔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내부 코로나 발생의 징후가 보였음에도 북한의 주장은 변한 적이 없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2년간 시달렸던 코로나의 경험을 지난 5월 12일 이후 근 한 달 여간 압축해서 경험하고 종식을 앞두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매체들과 연구기관들은 북한정권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하는 내용의 행간을 통해 유추할 뿐이다. 행간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행간을 통하여 북한 내부의 대략적 정황을, 보도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과 외부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북한정권이 발표한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종합하고 코로나 유행 속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들을 분석할 것이다.

## 1. 북한의 코로나 현황

북한은 5월12일 코로나19 발열자(확진자) 발생 소식을 처음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5월12일 1만8000명이던 일일 신규 발열자 수는 5월15일 39만29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확산세가 가라앉아 5월24일에는 발열자 수 11만5970명을 기록했다. 한때 하루 21명까지 올라갔던 사망자 수도 점차 내려와 5월23일부터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에 의하면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5월 12일 새벽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간 7차례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고, 12일 새벽 2시에는 당 정치국 협의를 열고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선언하며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코로나 관련 의약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있다며,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는 특별명령을 하달했다.

문물 모방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의식 함양에 중점을 둔 사상교육 강화 및 정치조직생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북한체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가 과거보다 더욱 강행되는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사회적 이탈, 정치조직생활 기피,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을 서신 혹은 전화로 대체하거나 뇌물을 주고 정치생활 참여를 대신하는 등의 이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이전시기보다는 그 속도가 더디고 제한적이지만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주민 의식변화가 스스로 사회변동의 주체적 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즉 성숙된 의식화로 승화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주민 의식변화를 제어하는 사회통제가 지속적으로, 시기별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 의식변화가 단순 불평불만에 국한된 현상적 변화를 넘어 북한체제의 불공정함을 깨닫는 의식변화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립적 생존과정에 추구되는 북한주민 의식변화가 문화의식변화, 정치의식변화로 촉진될 수 있는 추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추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주민 의식변화 차단을 위한 사상교육 강화, 둘째, 조직적 통제 강행에 의한 주민간 정치적 소통의 부재, 셋째, 시장 개장 규제에 의한 의식변화 정보접

촉 환경 제약(외부문물 유통 및 접촉 등), 넷째, 북한주민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이다.

북한주민 의식변화가 현 상황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된 의식화로 승화된다면 북한체제에 의해 내면화된 북한주민 의식은 인간본연의 자율적인 속성을 자발적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김 위원장의 동선이 당일 신속히 공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뒤인 14일에는 처음으로 전시 비상용인 '국가 예비의약품'을 풀도록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상비약을 공개적으로 기부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15일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대책 토의사업을 진행했고 뒤이어 5월 16일 북한 인민군이 평양 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돼 24시간 약품 수송 및 공급 작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평양시 안의 약국들을 찾아 의약품 공급실태를 직접 요해(파악)하는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5월 21일부터 코로나에 대한 보도 양상은 “위기”에서 “안정”으로 전환된다. 북한은 5월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전파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억제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가비상방역 사업이 ‘긍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소집된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 완화를 시사한다. 이 회의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이튿날인 5월 30일 “최근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연일 감소되면서 나라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국가 방역정책의 정당성, 효율성, 과학성이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

라고 보도했고, 6월 4일에는 “전국 모든 부문과 단위들은 당과 국가가 취한 제반 방역원칙과 조치들이 과학적인 담보성을 가지고 일관하게 집행되도록 각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정부가 “여러 유형의 변이 바이러스(바이러스)들에 대한 유전자 배열도 1만6500여 건을 분석함으로써 악성 전염병 진단에서 신속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6월 1일 보도를 통해 5월 30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3180여 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만8350여 명이 완쾌됐고 누적 사망자는 70명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발열 환자 373만8810여 명 중 356만960여 명이 완쾌되고 17만777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5월 27일 기준 발열환자 327만850여 명 가운데 사망자는 69명으로,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18일간 치명률이 0.002%에 머무른 것이다.

이후로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고 연일 선전 중이다. 북한은 6월 8~10일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14일 국가비상방역 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3만2810여 명의 발열 환



〈코로나 봉쇄로 인해 텅빈 북한 평양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4만260여 명이 완쾌됐다고 밝혔다. 또 발열 환자 총 450만2330여 명 중 444만2240여 명이 완쾌됐고 5만778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조선중앙신보를 통해 북한정권이 공개한 '지난 1개월 간 전염병 전파상황 분석'에 따르면 6월 10일 현재 북한 전역의 하루 발열자는 5월 15일과 비교해 89% 이상 감소했다. 일일 발생 신규 발열자 수가 정점을 찍은 5월 15일(39만2920명)과 6월 10일(4만2810명)을 비교한 것으로, 전날 기준으로는 약 91% 줄었다. 특히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4~5일 간격으로 신규 발열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6월 13일 신규 발열자가 3만 명 대까지 내려왔으며 6월 16일 현재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2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6월 15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73명이다.

## 2. 북한의 의료역량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12년 의무 교육과 무상진료는 북한정권이 사회주의의 우수성

을 강조하며 자랑해온 대표적인 제도이다. 과거 북한정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북한의 대다수 주민이 의무교육과 무상진료시스템의 혜택 속에 살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에 있어서 북한은 의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현재까지도 수치적으로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3.3명으로 이는 아시아 평균(1.3명)은 물론 남한(2명), 일본(2명)을 뛰어넘는다. 또한 의대 혹은 약대 졸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시험과 연구 성과 평가를 통해 승급하는 의사와 약사의 재교육 시스템, 의사담당구역제의 시스템이 확립되어있다. 북한 의료진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의료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서울대 신희영 교수에 의하면 “평양의대 교육은 결코 떨어지지 않으며 이미 평의대 학생들의 수준은 엑셀런트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사와 실험을 통해)청진의대도 역시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담배, 술과 같은 물건을 바치거나 혹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돈을 지불해야한다. 돈이 없는 경우 의사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해주는 조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1</sup> 과거 어린이와 아이들을 위한 의

1 이재관, 김성배,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중 무상의료시스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Vol. 15(2), (2020), p.84.

약품을 만들기 위해 2007년 평양에 개원한 SAM 평양제약공장<sup>2</sup>을 비롯하여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료의약품 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전후로는 최소 8개 공장에서 22개 이상의 약품을 생산하였으나<sup>3</sup>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감소한 이후로는 약품공장의 소식을 알 수 없다. 2000년대 중반 아스피린(일명 평스피린)으로 북한 내에서 널리 알려진 제약회사로 평스제약합영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북한과 스위스 사업자가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로 북한의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해외 GMP 인증<sup>4</sup>을 받은 제약회사이다. 그러나 평스제약 또한 2017년 이후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의료지원이 가장 활발하고 평스제약회사가 한창 확장하던 시기였던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필요한 의약품의 60-65%를 유니세프가 담당하고 있으며 35-40%를 국제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약품 지원이 아닌 원료 의약품 공급을 포함한 수치이다. 이렇듯 외부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의약품 생산은 남한

의 대북정책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공적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이다. 과거 필자가 현장에서 양육한 북한주민 중 한 자매는 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자매였다. 그 자매가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족 출판사가 발행한 민간요법과 전통요법에 대한 책을 두 권 얻었는데 북한에 돌아가 그 책을 기반으로 의료 활동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었다. 의약품은 중국 방문 북한주민들이 귀국 시 사가는 필수 품목이다. 그 이유는 의약품은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무엇보다 북한 내부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단동, 연길 등 조중 국경 거점도시들에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이 애용하는 약국과 도매상들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약은 단연 정통편과 비타민이다. 이중 정통편(正痛片)은 천진(天津)의 한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아스피린, 파라세타몰(타이레놀), 카페인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그러나 접경지역 시장에서 파는 정통편은 천진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정통편이 아니다. 이 약품은 정통편이라는 글씨가 조악하게 인쇄된 투명한 비닐에 수천 알씩 포장되어 판매되며 성분표시도, 설명서도 없다. 이 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효과가 좋아 향간에 아편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뿐 인터넷에 공개된 어떤 정보도 없는 약품이다. 이 약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북한의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시장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면서 약의 투약과 복용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처방된 약을 임의로 구입하기 때문에 주로 증상 개선 효과가 빠른 약들이 선호되고 약의 원료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상황은 주로 UN, WHO를 비롯한 국제기관들에 의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2017년 2월에 발행한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기지역 12 곳』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운데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 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발표가 시작되고 코로나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북한 방역 당국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칫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노동신문은 코로나 관련보도와 함께 우황청심환 복용이나 버드나무 잎을 우려먹는 것을 추천하는 등 민간요법을 소개했다. 조선중앙TV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며 "이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에 완전히 부착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존스홉킨스대의대 연구팀은 이중 마스크 착용은 한 겹 착용에 비해 나은 점이 거의 없으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매체는 코 안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금물로 코를 씻어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는 '코함수'의 효과를 강조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은 "남새(채소)를 많이 먹어 대변이 잘 나가게 하고 위장 부담을 줄여 감염률을 낮춰야 한다"며 각종 지침도 전파했다.

필자는 작년 제삼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간접적으로도 경험 있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분별한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의 남용을 막는 것이었다.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모두 발병초기 용량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게 철칙이다. 코로나에 확진된 노동자에게 5일 동안 하루 4회 매6시간마다 복용할 것을 설명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넉넉히 40알을 전달했다. 얼마 후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코로나감염 후 그 형제만이 아닌 같이 생활하는 인원 중 총 8명이 감염되었는데, 필자가 준 약을 8명이 이틀간 약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었다. 한 형제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용량을 준수하여 항바이러스제만 복용하였는데 회복이 더디었다. 그 형제는 동료들로부터 항생제 많이씩 먹으면 금방

2 박세록, 「나는 오늘도 꿈을 꾸니다」 (서울: 두란노, 2021), p281.

3 김진숙, 『평화의 아이들』 (서울: 북루멘스, 2018), p61.

4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란 우수한 의약품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규제 기관 및 국제기구는 자체적으로 GMP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GMP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미국 FDA의 규정으로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불리는데 당시 평스가 인증받은 기관은 프랑스의 기관으로 알려졌다.

## 북, 한미 항모훈련 이후 미사일 8발 발사



〈조선일보 인포그래픽〉

북한은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만인 6월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8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남한 등 여러 목표물 동시 타격 능력 과시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부터 9시 43분께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원점은 순안 등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여러 곳에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원점

타격이나 요격이 쉽지 않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만이다.

특히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끝낸 지 하루 만에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이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언론보도 종합) 🗨️

나을 것을 필자가 권한 약품만 너무 고지식하게 먹어 낫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었다. 당시 해외에 노동자로 나온 사람들은 그나마 배운 사람들인데도 이 정도인데, 북한 내부 일반주민들의 의식수준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약물부작용 뉴스를 접하며 이러한 북한내부의 현실을 다시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보도에 따른, 5월 22일 북한 자료를 보면 누적 사망자 6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다.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약품을 구할 수 없자 장마당에서 검증이 안 된 약이나 유사 약품을 사서 복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5월말부터는 오히려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경계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 3. 우리의 기도

우리는 북한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위에서 밝혔듯 북한은 의사와 약사의 재교육 시스템, 의사담당구역제의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만성적 물자부족과 시설의 낙후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뒷받침할 사회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미개발 국가는 물자부족과 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확충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시킨다. 그러나 UN의 대북제재와 개별국가들의 제재는 북한을 지원하는데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북한의 변화와 대북제재의 완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5월 12일 북한의 코로나 발표가 시작된 후 대북제재를 우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정권도 호응할 만한 창의적인 지원방법을 토론했고 그중 의미 있는 방안들도 여럿 공유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극히 제한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북한정권의 태도변화와 남한과 국제사회가 그를 추동할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상황은 코로나 사태 이전 2019년에도 주민들이 소비할 식량 기준에서 약 70만 톤이 부족했다. 또 코로나 봉쇄로 영농자재 수입이 중단된 2020년에는 생산량이 더 하락하면서 86만 톤 부족했고, 비교적 기후조건이 양호했던 2021년에도 여전히 70만 톤 정도는 부족해 북한 식량난은 만성화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9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연간 식량 필요분을 550만 톤으로 보고 1일 최소 식량소비량이 1만 톤으로 보는데 북한은 이미 최소 소비량의 70~80%로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가 모내기철인 5월에 북한에서 확산되어 주민이동이 통제되었다. 게다가 올해 한반도는 봄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10월 추수때까지 버티더라도 2023년의 식량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올해도 북한의 식량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

##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 (VOA)〉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월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방사성화학연구실의 활동 징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지어지던 별관에 지붕이 올라가 외견상 건설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영변 경수로 인근에 작년 4월부터 공사 중이던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는 건물 두 동이 착공됐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994년 건설이 중단된 50MW 원자로 건물이 해체되고 일부 자재가 제거된 모습이 관찰됐는데, 이는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월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지녀온 우려”라고 밝혔다.

6월 13일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본 회견에서 양국 장관은 대북 확장 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종합) 🗨️

## 통일부 “북 코로나로 식량난”... CIA “2~3개월치 86만 부족”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농사일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80톤 내외로 추정하면서 관련 상황을 긴밀하게 관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6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이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외 봉쇄 지속에 따른 외부 물자의 도입 축소와 가뭄 상황 등을 식량난에 변수를 줄 요인으로 손꼽았다.

또한 조 대변인은 최근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은 상황이라며 “북한과 우리와 기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의 6월 곡물 수확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에 대해 긴밀한 관찰과 분석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의 식량 부족 규모가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톤으로 추정된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모내기 등 벼농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중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5월 중순은 북한 모내기 최적기로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도도 늦어도 6월5일까지 끝내야 가을철 정상 수확이 가능하다”며 “모내기, 옥수수 애벌 김매기 등 벼농사 대부분을 사실상 학생·군인 등 주민 동원에 의존하는데 코로나19로 동원되는 주민수가 예년의 30%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가뭄도 변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4월 한달간 강수량은 평년의 44%에 그쳤다.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박사는 “가뭄 피해가 컸던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6월 수확 예정인 보리·밀 생산량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지원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태현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는 “당장 한두달이 고비인 만큼 마스크·진단키트·백신·치료제를 지체 없이 보내고 식량·비료·농약·농기계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BC, 6월 20일/농민신문, 5월 23일) 🗨️

## 북 언론 “누적 발열자 6월 17일 기준 총 458만여명… 사망자는 73명”



조선중앙방송은 6월 1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2만3천16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만8천43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발열 환자는 총 458만1천420여명이며 이 중 99.104%(454만390여명)가 완쾌되고 0.894%(4만96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류영철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전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누적 사망자는 73명이며 이에 따른 치명률은 0.002%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40만 명에 가깝게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은 뒤 같은 달 16~20일에 20만 명대, 21~26일에는 10만 명대로 내려오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줄곧 10만 명 아래를 유지해왔으며 현재는 2

만 명대까지 줄었다.

평양 대성구역 려명종합진료소 소장 최복실은 조선중앙TV에 "이번에 우리 진료소가 맡은 주민들 속에서 유열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아직 열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조건에서 치료안내 지도서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서도 호담당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 얻은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북한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발열 환자 규모와 비교해 사망자가 너무 적은 점 등으로 미뤄 북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발표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월 17일)

## 바이러스 학자들, 북한발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우려



〈WHO 대북 대표 에드윈 살바도르 박사〉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에서의 제한된 백신, 열악한 의료 시설, 국민의 낮은 건강 수준 등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부 구호 단체들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 수처에 관해서도 믿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HO 긴급대응팀장 마이크 라이언(Mike Ryan)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위험이 더 높다고 우려를 표했고, WHO는 백신 지원과 여러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본 전염병 협회(Japan

Association for Infectious Diseases)의 다테다 가즈히로(Kazuhiro Tateda) 회장도 북한에서 결핵 확산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 19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했다.

올 상반기 동안 북한은 스스로 마스크, 산소 호흡기, 백신 등을 중국을 통하여 수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거의 모든 의약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 2년간의 국경 폐쇄로 공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WHO 대북 대표인 에드윈 살바도르 박사(Dr. Edwin Salvador)는 WHO가 국가 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당국을 위한 코로나19 대응과 마스크, 장갑, 개인 보호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전히 평양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살바도르 박사에 따르면 WHO는 이미 북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출현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19 검사 및 염기서열 분석에 대한 실험실 지침과 온라인 교육 자료 등을 공유했지만, 보다 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비슷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를 보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비슷한 수치의 감염일 경우 북한의 의료 시설이 압도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사이언스타임즈, 6월 20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사랑으로 길을 내다  
**저자:** 윤상혁  
**출판사:** 두란노  
**발행일:** 21년 11월 17일  
**가격:** 14,000원

저자 윤상혁은 청년시절 의료선교사의 꿈을 품고 도미하여 미국의 대학에 진학한 선교사 후보생이었다. 대학에서 꿈을 이루어 가던 중 미국여성 조이(Joy)와 교제를 시작한다. 조이는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청소년기를 보낸 선교사 자녀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던 시절 북한선교에 소명을 받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자도 한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선교의 소명을 받는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부부는 북한을 향해 떠난다. 4박5일간의 북한 방문 후 그들은 자신들이 북한에 사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평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자 가족은 코로나확산 직전까지 13년

원을 찾아왔다. 진료 중 일어난 기적을 통해 저자는 북한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마음에는 긴장과 불안 대신 깊은 평화가 들어왔고 북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본 순간 초라한 북한 땅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는 한 달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수백 명을 치료하며 북한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한다. 이후 저자 가족은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지역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등을 지었고 신발공장도 운영하여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후로도 저자는 북한사역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북한 어린이를 돕는 국제 NGO 선양하나 공동체를 만들어 다

간 북한에 거주하였다. 원칙적으로 북한은 외국인 의사에게 북한 주민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우연히 북한주민을 진료할 기회를 얻는다. 외국에서 온 의사의 진료를 보기 위해 10여 명의 북한 의사들이 진료를 참관하는 가운데 진료를 시작되었고 저자는 기도하며 진료를 이어간다. 성령을 의지한 진료를 통해 기적적 치유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한 달을 머물며 치료하다 보니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 지역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병

양한 사역을 벌어나간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 형제 자매와 인간적인 소통을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 계신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저자의 전공은 별다른 장비 없이 주로 손으로 자극을 가해서 척추나 허리, 관절 등의 질환을 치료하고 교정하는 척추신경학이다. 북한에서 이 분야를 관심 있게 여겼고 한 지도원의 권유로 북한에서 외국인 최초로 의학박사를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저자 가족은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을 것만 같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어느 시골에서 만난 뇌성마비환자 복신이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한 아이의 회복을 향한 저자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은 북한 관료들의 마음에도 전해져 사역의 달린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저자는 북한의 장애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병원을 설립하였고 아내와 함께 북한에서 최초로 행동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와 특수 교육의 장을 열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북한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장애를 바라보는 북한당국의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북한에서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화목임을 명확히 깨달았다. 이 책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땅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놀라운 화해의 여정을 담담히 들려준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장벽이나 다름이 있어도 다가갈 수 있다.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19세기 이래로 의료 선교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으로 인식이

되었다. 서구의 발달된 의료행위는 질병을 가진 현지인들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의료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마음을 열었다. 치료와 치유의 행위는 단순한 접촉점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를 체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광혜원을 설립한 알렌(Horace N. Allen)은 1883년 미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조선에 온 인물이었다. 그의 의료행위를 통해 조정으로부터 얻은 깊은 신뢰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 이후로 의료선교사들의 활약은 서울을 넘어 조선팔도 전국으로 확장되어 선교사들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있게 했다.

북한선교를 위해서도 1990년도를 전후하여 수많은 의료선교사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결핵 환자를 지원한 유진벨재단, 평양제3병원을 설립하고 사랑의 왕진가방을 개발하여 보급한 샘복지재단의 사역의 바탕에는 탁월하고 헌신된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기독교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개성공단 내부의 병원을 운영한 그린닥터스재단,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던 2000년대 초반 꾸준히 북한과의 의료교류를 이어온 광주전남 지역 의료인들의 모임인 선한의료인들을 비롯하여 2000년대 초반 평양의학대학병원과 남한의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교류가 활발하던 당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평양에서 수술을 집도한 기독교의사들이 있었다. 중국의 연변의 복지병원, 단동의 샘병원, 심양 사랑병원, 장백현의 진료소 등에서



〈북한의 뇌성마비 환자들을 진료하는 저자 (선양하나 홈페이지)〉

중국인들과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수많은 의료선교사들이 있었고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는 재미교포 심장병 전문의로서 이주현 선교사가 탈북자와 북한 벌목공을 위한 사역을 펼치다가 순교한 사례도 있었다. 엄청난 사랑과 물질을 베풀면서도 북한 당국자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수년간 입국 금지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사역의 많은 부분은 위축되었으나, 많은 의료선교사들이 북한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사역자가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역과 이야기들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에는 보안문제로 인한 큰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주로 북한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선교사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부사역이 정리된 후이나 부분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곤 한다. 북한 내부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역자로서 저자는 아마도 자신의 사역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나누기까지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책에 쓰인 많은 이야기들과 최근 여러 방송에서 전한 저자의 간증을 들어 보면 북한사람들을 향한 저자의

진실된 마음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으며, 저자의 삶 자체가 누가 보아도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에 비하여 매우 우월한 삶을 살아왔다. 사역의 순수성과 진실성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감은 저자가 자신의 사역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과 그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은 북한사역자들이 안전과 신분의 불안감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종류의 압박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 저자 이전에도 많은 해외교포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사랑을 전해 왔다. 이들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저자와 같이 오랜 기간 북한에 거주하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이들은 통일을 위한 민족과 교회의 소중한 자원이다. 저자와 저자가 속한 선양하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 1 북한의 코로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6월 20일 기준 북한의 누적 발열자는 총 463만9천930여명으로 이 중 460만8천320명이 완쾌됐고 3만1천54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사망자는 73명으로 치명률은 0.002%입니다. 특히 신규 발열 환자가 1만 8천 82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검사 장비가 부족해 ‘확진자’가 아닌 발열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미흡합니다. 발표된 사망자 수도 비정상적으로 낮아 실제 사망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외부세계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큼니다. 북한의 코로나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서민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숨어있는 성도들과 추방 및 수감당한 성도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공식적인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식량난 타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2년이 넘는 봉쇄 장기화로 대부분의 무역이 제한되었고 장마당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발병과 확산은 주민들의 건강 뿐 아니라 경제적 생존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확산 시기가 주요 모내기철인 5월과 겹치면서 식량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국경이 정상화되고 장마당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다시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 사태가 해결되고 선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선교에 중요한 현장들도 계속해서 지역별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대부분의 길이 막혀있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현장에 계시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

고 파송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현장의 일꾼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현장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십시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주민 통제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등과 연계되어 더욱 극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 내에 적발된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피해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과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 외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AEA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재가동 징후를 여럿 포착했다고 합니다. 한미 정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 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6월 30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0명 (전임)

**지원 자격**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이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필수- 국제본부와 커뮤니케이션)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담당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 구인시까지

**문의** 이제나 간사 (010-4668-6356),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